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이 **안산톡톡**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노적봉 인공폭포

03 폭염아 물렸거라!

안산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본격 가동!

안산에는 공원과 하천에 다양한 수경시설(분수, 인공폭포, 인공연못 등)이 마련돼 있다. 자연적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노적봉 인공폭포부터 공원 내에 작은 분수까지...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수경시설로 쿨~하게 여름을 즐기자!

06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1만호 가맹점 돌파! 가맹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올 4월 1일 발행된 다운은 두 달여 만에 가맹점을 1만호 넘게 모집했고, 판매액도 60억 원을 넘겼다. 안산시는 다운 가맹점 위치와 정보를 스마트폰·PC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해 운영에 나섰다.

04 청년도시 안산, 청년창업가가 미래 만든다

청년창업가 사업화 돕는 '청년큐브'

창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창업 초기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돕는 안산시 청년큐브가 4년째 순항 중이다. 월피동과 사동에 각각 문을 연 예대캠프, 한양캠프는 2016년 부터, 초지캠프는 2017년부터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12-13 여름철에 가면 더 좋은 곳!

야외수영장, 경기도미술관, 화랑오토캠핑장 등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 7월 19일 개장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꼭 물이 있어야만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미술관과 단원미술관을 방문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기획전 등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보다 더 덥다’

안산시, 134일 동안 폭염대응 종합대책 가동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다. 가만히 있어도 땀을 줄줄 흐르게 하는 무더위는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한다. 여름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의 그늘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시원하게 내뿜는 에어컨 바람과 분수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한줄기 오아시스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안산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2019년 안산시 여름철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20일부터 폭염대응 T/F팀 운영에 나섰다. 시 행정안전국장이 팀장을 맡으며 ▲상황관리 총괄반 ▲취약계층 지원반 ▲농·축산·어업 폭염대응반 ▲건설업 폭염대응반 ▲용수·전력관리반 ▲무더위쉼터 관리반 ▲폭염저감시설 및 시설물 관리반 ▲홍보반 등 8개반 56개 실·과·소·동이 참여해 폭염 대책기간이 끝나는 9월30일까지 활동한다.

올 여름 무더위 피하려면?

시내 곳곳 그늘막·분수·무더위쉼터 찾으세요

안산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생생 그늘터’를 기존 89곳에서 170곳으로 늘려 설치했다. 그늘막은 올 여름 내내 횡단보도 주변 등 곳곳에서 시민에게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준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때에는 시 전역에 14대의 살수차가 운영된다. 시 주요 도로 곳곳에 배치된 살수차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며 도로 열기와 시민들의 더위도 식힌다. 아울러 도로 주변의 먼지도 씻어내는 효과도 있다.

더위 속에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시원한 물안개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화랑유원지 내 70m 구간에 설치했던 ‘쿨링포그’를 올해는 성호공원, 호수공원, 사동8호공원까지 확대 설치했다. 쿨링포그는 안산 수돗물 ‘상록수’가 인공 안개비로 분사되며 시원함을 제공한다. 쿨링포그는 주변온도를 3~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무더위에 지쳐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안개를 제공하며, 공기 정화를 통해 쾌적함도 느끼게 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또 와동체육공원과 안산문화광장, 호수공원 등 곳곳의 물놀이 시설 정비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안산문화광장에는 바닥에서 물이 솟는 바닥분수부터 물안개가 퍼지는 ‘미세기폰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워터폴, 낙수브릿지 등이 매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기승을 부리는 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변에는 또 무더위 쉼터(텐트) 40개와 잔디매트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한다. 노적봉공원, 반월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등 시내 곳곳 공원에 마련된 폭포와 분수, 도섬지(연못)도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더위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보건소는 1만2천124가구에 달하는 이들에 대해 간호사 등 전담인력 31명으로 꾸려진 ‘폭염대응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폭염상황에 따라 취약계층을 만나 건강 확인과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영양제와 영양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사전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에도 나서는 등 대응 태세를 마련했다. 응급관리요원, 생활 관리사, 방문보건팀 등으로 꾸려진 폭염재난도우미 529명도 무더위 대응을 위한 인력으로 투입된다.

또 지난해 237곳이었던 무더위 쉼터를 올해는 267곳으로 늘리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대응 T/F팀을 지난해보다 빠르게 구성, 조기에 대응태세를 구

축했다”며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한편, 폭염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면 사망까지’

무더위 왜 위험한가…지난해 안산시 온열질환자 58명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을 유발한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경련 외에도 땀띠(한진), 율열증, 화상 등 다양하다.

땀띠와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릴 때 발생한다. 흐르는 땀이 피부를 자극시켜 발진이 생기는 증상의 땀띠는 심하면 땀구멍이 막혀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땀에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야 한다. 아울러 많은 땀이 배출되면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열경련은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까지 유발한다. 그늘에서 쉬며 소금을 녹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되지 못해 생기는 열사병은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공간에 있으면 발생한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도 일으킬 수 있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체온은 매우 높아졌지만,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는 율열증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그늘에서 톱툰이 쉬는 방법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지난해 여름 안산시에 폭염특보(폭염주의보·경보)가 발효된 날은 모두 38일로,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폭염주의보는 11회, 폭염경보는 27회에 달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각각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보건소에서 파악한 온열질환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기상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를 포함한 수도권 5~7월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지만, 시민들도 무더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429)





숫구치는 분수와 쏟아지는 폭포수! 쿨~하게 무더위를 이기는 법!

폭염이 물렸거라!
안산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본격 가동!

폭염이 기승이다.
휴가기간에 계곡으로 바다로
떠나면 최고지만 휴가는 짧고 여름은 길다.
주말을 이용해 인근 워터파크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교통정체도 만만치 않다. 힘들게 다녀오고 나면
때론 다녀온 것 만 보다 못한 피로감에 젖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다행히 안산에는 공원과 하천에 다양한 수경시설(분수, 인공폭포,
*도섭지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자연석으로 만든 국내 최대의 규모의
노적봉인공폭포부터 공원내의 작은 분수까지...
하천을 건다보면 숫구치는 분수에 상쾌함이 올라간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다보면 불쾌함이 내려간다.
가까운 도섭지를 방문하면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 역시 즐겁다. 현재 운영 중인 수경시설을 소개한다.

별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수경시설로
쿨~하게 여름을 즐기자!

*도섭지[wading pool, 徒涉池] :
아동용의 물놀이를 대상으로 한 얕은 연못의 일종으로 위험이 적고 여름에 최적적의 놀이터가 됨.

공원명	위치	시설	운영일자	운영일	운영시간
노적봉공원	성포동 산39-1	폭포	~10월	매일	오전10시~오후5시30분
		도섭지	~8월		오전10시~오후5시30분(매시 정각 시작 45분 가동)
반월공원	본오동 723	도섭지	~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7.22.~8.30. : 매일	오전11시~오후5시30분(매시 정각 시작 30분 가동)
성호공원	이동 615(식물원 뒤)	도섭지	~8월		오전10시~오후5시50분(매시 정각 시작 50분 가동)
		바닥분수	~8월		오전10시~오후5시50분(매시 정각시작 20분 가동)
호수공원	사동 1509	연못분수	~10월	매일	오전10시~정오, 오후1시~오후3시, 오후4시~오후7시
와동공원	와동 813-1(와동공원 내)	물놀이장	~8월	매일 ※ 우천 시 및 월요일 휴장	오전10시~오후6시
원고잔공원	고잔동 산87-3번지	바닥분수	~10월	매일	오전10시~오후7시(매시 정각시작 20분 가동)
하천 내 수경시설	안산천	부유분수	~9월	매일	오전11시~정오, 오후2시~4시, 오후7시~9시
		바닥분수	~8월		정오~오후1시, 14시~16시, 17시~18시, 19시~20시
		프로그램 분수(상류)	~9월		오전11시~오후9시
		프로그램 분수(하류)	~9월		오전10시~오후8시
	화정천	터널분수 외	~9월		오전11시~오후9시
		폭포분수 외	~8월		정오~오후1시, 오후2시~4시16시, 오후5시~6시, 오후7시~9시
		벽천폭포	~9월		오전11시~정오, 오후2시~오후4시, 오후7시~오후9시
안산문화광장	물의광장(NC앞)	미세기폰드	~9월	매일	오전9시~오후8시
		낙수브릿지			
	썬큰광장(홈플러스앞)	바닥분수			
	정망대광장	안개분수			
	숲의광장	워터풀			
		계류시설			
선부광장	선부동 1073	바닥분수	~9월	매일	오전10시~정오, 오후2시~5시
신길광장	신길동 1620	바닥분수	~9월	매일	

※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7~8월 기준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년도시 안산, 청년창업가가 미래 만든다 청년창업가 사업화 돕는 '청년큐브'

대상 기업 제한 없이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된다. 현재 입주한 기업을 살펴봐도 3D프린팅 등 기술 분야·기획·마케팅·화장품·모바일·서비스플랫폼·공연예술 분야 등 다양하다.

청년큐브를 운영하는 경기ITP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지원(창업교육, 기업진단, 기술임치 등) ▲일반지원(멘토링, 제품화, 마케팅, 인증·지적재산권 등록 등) ▲심화지원(사업화,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진출 지원(해외전시회참가, 투자홍보 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청년큐브 캠프 3곳에 입주한 기업은 모두 50개(135명) 업체로, 24억5천여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제 창업을 시작한 기업인 이들에게는 매출보다 사업화를 위한 지적재산권·각종 인증, 기술개발이 중요한데, 29건의 실적을 올렸다. 시는 운영비로 8억 원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2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인이나 3년차 이하의 청년창업가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청년큐브 사업의 핵심”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을 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계속해서 창업 인프라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창업 초기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돕는 안산시 청년큐브가 4년째 순항 중이다. 월피동과 사동에 문을 연 예대캠프, 한양캠프는 2016년부터, 초지동 초지캠프(시네랩안산)는 2017년부터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큐브에 입주한 기업 테솔로(TESOLLO)의 김영진 대표는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19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제조&에너지 산업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하는 ㈜나무엔은 3D프린팅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능력을 인정받아 강의에도 나서고 있다.

청년큐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흔히들 창업을 벤처(Venture), 스타트업(Start-up)이라고 부른다.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해 신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기업도 모두 시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스타트업 기업은 보통 창업부터 3년 이내에 큰 성과를 이뤄내 투자 받아 사업화를 통해 성장시키거나, 큰 금액에 기술을 파는 등의 흐름을 보인다.

안산시는 이러한 청년창업가들의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큐브를 추진했다. 미숙아 등의 아이를 키우는 '인큐베이터'의 단어를 딴 '인큐베이팅'은 단어 그대로 창업기업을 품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큐브는 현재 예대캠프(20실·816㎡), 한양캠프(10실·314㎡), 초지캠프(20실·2578㎡)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실,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으며 시제품 제작 공간과 멘토링실도 마련됐다. 안산시는 이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전문 창업가와 연계해 홍보·마케팅과 인증 업무 등을 돕고 있다.

청년큐브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거주민이 1명이라도 반드시 기업에 직원으로 있어야 한다.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안산시 관내 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다면 가능하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차례 ▲창업 열정 및 의지 ▲창업 역량 ▲아이템 사업성·시장성 등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 모집하며, 입주 희망기업이 몰리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입주 기업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기업에는 창업공간(10~20㎡)과 공용 회의실이 무료로 제공된다.

청년도시 안산, 청년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안산시가 청년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청년이 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71만7천130명의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다. 그러나 청년인구(15~29세) 비율만 따지면 22.5%로 경기도 시·군의 1위를 차지한다. 인구 124만2천212명의 수원시보다 전체 인구는 52만5082명이 적지만 청년 비율은 1% 높다. 시는 높은 청년 비율을 무기로 청년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현재 창업큐브 외에도 관내 대학인 한양대·안산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또는 3~5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 신기술 개발자 등을 각각의 자체 평가로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과 특허출원, 기술개발 지원 등 혜택을 통해 창업 단계를 뛰어넘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반월국가산업단지도 젊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6월 통상자원부로부터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돼 산단 환경·주거시설 개선에 국비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올 2월에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도 선정됐다. 제조업 기반의 산단에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이 적용돼 노동 환경과 주거 환경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한양대 ERICA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안산사이언스밸리(ASV·Ansan Science Valley)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술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이 추진되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안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미래를 이끌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찾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TERVIEW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임윤희 위원장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

Q.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는 어떤 곳인가?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는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5월에 구성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관련 협의기구이다. 일자리, 창업, 문화예술, 생활복지 등 4개 분야에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위원 3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Q. 협의체와 위원장의 주요한 역할은?

수많은 안산시 지역 청년들을 대표해 모인 협의체다. 시에서 추진할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 제안하며 실행까지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라 알고 있다. 협의체에서의 의견과 정책들이 잘 전달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다. 시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Q. 안산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보다 많은 청년정책들이 시행 중이어서 놀랐다. 취업 훈련 옷장, 일하는 청년통장,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좋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안산 청년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에서도 노력하겠다.

Q. 청년들을 위해 제안하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제안하고 싶은 청년정책들이 많지만 제일 관심 가는 건 주거정책이다. 본오동에 ‘쉐어 하우스형’ 청년주택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자가용이 없는 청년은 출퇴근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주택마저도 많이 없어 주변 청년들은 치솟는 월세, 전세를 감수하며 어렵게 1인 가구로 살고 있다. 정책적으로 안산시의 예산을 투입해 공실률이 높은 건물, 노후 된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건물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으로 마련하면 어떨까? 청년들의 생활고를 덜 수 있고, 안산에서 살며 일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인구 증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Q. 안산의 청년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청년이 살기 힘든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모였다. 앞으로 이 속에서 많은 청년정책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모아 제안을 하고 추후에는 실행이 되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정책은 곧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 생활과 관련해 생각한다면 실제 청년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청년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안산을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 문의 : 안산시 정책기획관(031-481-3909)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아는 것이 힘이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 주거 꿀팁’

노무사 · 주거복지사 초청 ‘슬기로운 청년생활’ 강의 7월까지 진행



청년이 알아야 할 슬기로운 꿀팁!

슬기로운 청년생활

별종선에서 답답해 할 수 있는 슬기로운 꿀팁 배우기!

4월 「노동편」

- 1회 2019년 4월 14일(월) 오후 7시
- 2회 2019년 4월 21일(월) 오후 7시
- 3회 2019년 4월 28일(월) 오후 7시
- 4회 2019년 5월 5일(월) 오후 7시

5월 「주거편」

- 1회 2019년 5월 12일(월) 오후 7시
- 2회 2019년 5월 19일(월) 오후 7시
- 3회 2019년 5월 26일(월) 오후 7시
- 4회 2019년 6월 2일(월) 오후 7시

본 제반 역 있는 청년, 당사 기업에 불복을 제기하는 청년, 무로로 여간하는 청년 등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청년 등

노무사, 주거복지사 초청 '슬기로운 청년생활' 프로그램

6월 14일 진행된 노동편 1강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속 한지경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해고 및 사직 등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청년들이 일하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 수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수는 총 1천689곳인데 이는 2016년(1천142곳) 대비 47.9%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천750명 중 64.2%인 1천710명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이 이유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엄연히 법 위반이며 여전히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에 많이 노출된 청년 세대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각종 노동 상식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무료 강연이 안산에서 열려 현장을 찾았다.

‘안산청년행동 더함’에서 주관한 ‘슬기로운 청년생활’ 프로그램이 6월 14일 저녁 7시 안산YMCA 강당에서 진행됐다. ‘슬기로운 청년생활’은 ‘청년이 알아야 할 슬기로운 꿀팁’이라는 주제로 노동편 2회, 주거편 2회 총 4회 진행된다.

6월14일 진행된 노동편 1강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속 한지경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해고 및 사직 등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청년들이 일하면

서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했다.

강의에 참여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었다. 강의를 들은 청년들은 실제 본인의 경험을 소재로 의문 사항을 질의하며 강의에 참여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을 준비한 문지원 안산청년행동 더함 대표는 “법을 몰라서 아르바이트하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청년들, 직장 생활에서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상사 갑질, 부당한 야근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실제로 많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문제 제기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강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6월 28일 노동편 2강으로 청년 노동자 당사자들이 모여 자신의 일터에서의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한 앞담화’가 진행되고, 7월 12일에는 노동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인 주거 문제를 다룬 주거편 1강,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거계약 꿀팁’으로 청년 주거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인 주거복지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7월 26일 주거편 2강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 꿀팁 나누기’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이나 문의는 안산청년행동 더함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청년행동 더함(010-9976-467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발행 3개월만에 가맹점 1만곳 돌파. 판매액 60억 초과 안산시, 1만800여 가맹점 위치·연락처·업종 정보 제공

1만호 가맹점 돌파 기념식 개최

안산시는 6월 12일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가맹점 1만호 돌파를 기념해 상록구 성안길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열린 기념행사에는 안산시 관계자를 포함해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가맹점 1만호 돌파를 기념하는 취지로 1만 번째 가맹점인 박동현(35) 대표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헌편식을 진행했다.

한양대 ERICA캠퍼스 인근 상록구 성안길에 위치한 박 대표의 레스토랑은 올 2월 오픈해 4개월째 영업 중인 곳이다. 박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을 거쳐 2010년 부모로부터 300만원을 지원받아 중고 푸드트럭을 구입, 6개월 동안 소시지를 팔아 모은 2천만 원으로 요식업에 뛰어들어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다.

박동현 대표는 영업 방식에 대해 "저렴한 가격과 식재료업을 병행해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 입맛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했다.

헌편식에 이어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청년활동 협의체 위원 등 청년 4명과 기본소득과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 도입 등으로 청년들과 지역 상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4월 1일 발행된 다운은 두 달여 만에 가맹점 1만700곳을 모집했고, 판매액도 59억 원을 넘겼다. 당초 판매 목표액인 40억 보다 19억 원을 초과한 성과다.

시는 이처럼 다운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3개월 동안 10%라는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한 것과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공직자 등 모두가 다운 활성화에 동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운 가맹점이 1만700곳을 넘어섰고, 일일 평균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것은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상품권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가맹점, 스마트폰·PC 지도로 구축

안산시는 안산사랑상품권 '다운(多溫)' 가맹점 위치와 정보를 스마트폰과 PC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해 운영에 나선다. 가맹점 정보가 담긴 지도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안산시청 홈페이지(m.ansan.go.kr · www.ansan.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 있는 '안산사랑상품권다운'을 클릭한 뒤 가맹점현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또는 '생활정보지도'를 클릭한 뒤 '지역화폐(다운)'에 접속하면 된다.

시는 ▲가전·디지털 ▲건강·병원 ▲건설·건축·기계·전기 ▲광고 ▲교육·학원·사무용품 ▲카페·베이커리·디저트 ▲반려동물 서비스 ▲뷰티·패션 ▲식품·생활용품·편의점 ▲여행·여가·취미 ▲음식점·패스트푸드 ▲인테리어·가구·꽃 ▲자동차서비스 ▲

기타서비스 등 14개 업종으로 분류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가맹점 상호명, 업종명, 주소, 대분류명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검색된 가맹점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락처, 지역화폐사용 종류(지류식·카드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서비스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이 아닌, 시청 내 관계부서의 협업의 성과물이다. 데이터 담당 부서는 1만 건이 넘는 가맹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등 시 자체 기술로 제작을 이뤄냈다.

시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14일 기준 다운 종이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만800곳에 달하며, 일반 카드와 똑같이 쓸 수 있는 카드 가맹점은 3만7천680곳에 달한다.

시는 추가 가맹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불만 사항과 개선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다운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로 가맹점 범위 넓혀

안산시는 지속적으로 다운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간의 거래 활성화와 시민들이 건축 자재 등 건축 관련 소비 품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여개 소규모 건설업체가 다운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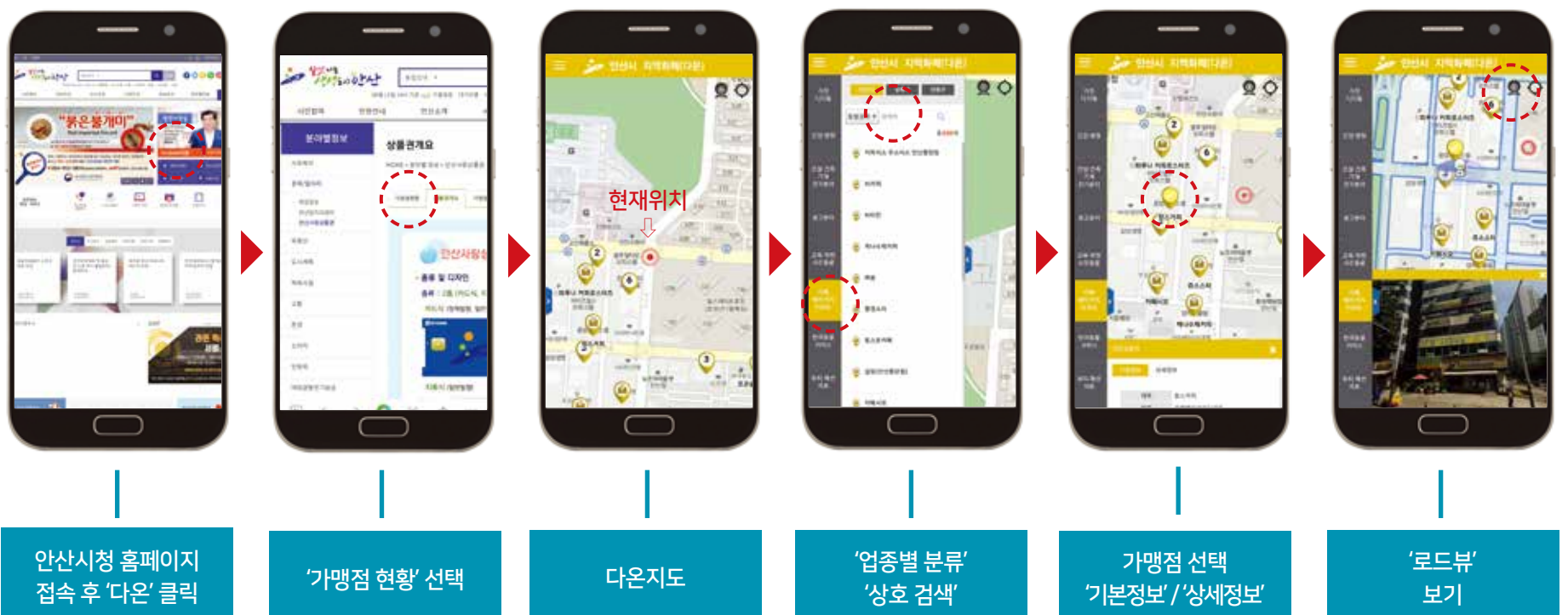
또한, 현재 다운 가맹점은 14개 업종으로 분류돼 있는데, 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업체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구매·소비하도록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역 내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가 가능해져 대기업이 아닌,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운 가맹점이 일반 음식점 및 소매점 등에 편중돼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한정됐다는 단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건설업체도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함으로써 매출이 늘고 지역 업체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843)



안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 · 시화MTV 지정…수도권 산업벨트 4차 산업혁명 거점

안산시는 6월 19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 Ansan Science Valley) ·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 시화 Multy Techno Valley) 일대가 정부가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소특구 지정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침체된 안산시 산업구조는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한 혁신 산업으로 전환돼 ‘스마트 제조혁신’의 한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안산시 강소특구는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술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협동 로보틱스 부품 ▲고감도 IoT센서 ▲지능형 임베디드 모듈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등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특구는 모두 1.73km² 면적으로 ▲R&D거점지구(한양대 ERICA 캠퍼스, 0.84km²) ▲사업화촉진지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지역본부 · 경기테크노파크, 0.18km²) ▲사업화 거점지구(시화MTV, 0.71km²) 등 총 3개 지구로 구성된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R&D 관련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은 지역 기업에 전파돼 산업단지 전체에 혁신성장과 신산업 창출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50여개 이상의 첨단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7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완결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국가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산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자생 · 자족 가능한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정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존에 ‘연구개발특구’를 운영,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해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등 5곳에 연구개발특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대규모로 분산돼 진행되면서 집적 · 연계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어 지난해 5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강소특구 모델이 도입됐다.

강소특구는 기존 운영된 연구개발특구보다 다소 작지만 보다 집약적으로 전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첫 대상지로 안산시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지원과(031-481-2860)

관내 병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검진 실시

12월 15일까지 1천600여명 대상… 학교건강검사로



안산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관내 6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1천60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협약기관은 구강 검진이 가능한 건강검진센터가 있는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선정했으며, 단

원구 소재 단원병원 · 온누리병원 · 한도병원, 상록구 소재 동안산병원 · 사랑의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총 6개 병원이 참여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안산시 내 64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보호아동 중 건강검진 의무대상(초1 · 4학년, 중1, 고1)을 제외한 1천600여명의 아동들에 대해 ‘학교건강검규칙’ 제5조에 따른 것으로, 다른 곳보다 빠르게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 병원 관계자는 “지역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뜻있는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64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2천300여명에게 안전한 돌봄 · 교육 · 정서 ·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67)

안산시, 제1회 안산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 공모전

최우수상 최대 50만원… 국민 독서활동 장려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안산의 책’과 연계하여 ‘제1회 안산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공모전은 기존에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독서감상작 공개모집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 개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의 책’을 읽고 깊이 있는 독서활동을 하도록 마련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수작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상금은 일반부 최우수상 50만원 등이다.

대상도서는 2019년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너는 너로 살고 있니(김숨) ▲편의점 가는 기분(박영란) ▲가정통신문 소동(송미경) 등 총15권이다. 서평은 ▲일반부 ▲중 · 고등부 ▲초등 고학년부, 독서감상화는 초등저학년부, 독서감상툰은 ▲중 · 고등부 ▲초등고학년부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존의 모집분야에 독서감상문을 서평으로 변경했으며, 독서감상툰을 포함하여 ‘독후활동=독서감상문’이라는 틀을 깨고 참여방식을 다양화했다. 또한 방문, 우편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도서관 홈페이지로도 접수가 가능하여 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응모할 수 있다. 안산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10월 11일까지 완성한 독서 감상 작품과 참가신청서(도서관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은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총 30명에게 안산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안산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의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를 참조하거나 중앙도서관(031-481-3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영향력 있는 젊은 기업가 30인'에 선정

(주)테솔로 김영진 대표, 학습관리 스마트펜 누보 로제타(NUBO Rosetta) 출시



“유니크한 기술을 가지고 일상의 불편함을 없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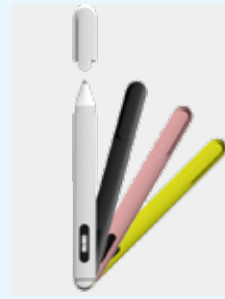
2016년 SK 청년비상 창업동아리로 시작해 지난해 1월 안산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입주한 청년기업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Forbes 30 under 30 Asia)-제조&에너지 산업 부문'에 선정됐다. (주)테솔로(TESOLLO) 김영진 대표의 이야기다.

테솔로(TESOLLO)는 Technology(기술)와 Sole(유일한)의 합성어로 테솔로만의 유일한 기술로 일상에 존재하는 불편함을 없애자는 기업 비전을 표현한 것이다.

테솔로는 팔이 절단된 환자를 위한 로봇 의수 얼라이브 핸드(ALIVE HAND) 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크라우드 펀딩과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5일부터 대중에게 선보일 학습관리 스마트펜 누보 로제타(NUBO Rosetta)가 두 번째 작품이다.

김 대표는 “작은 포인터와 펜이 이번 선정과정의 일등공신이다”고 밝혔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 밑줄, 필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모션 프리젠테이션과 페나 포인터, 최근 선보인 학습관리 스마트펜 누보 로제타가 그것이다.

김 대표는 “포브스의 '영향력 있는 젊은 기업가 30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이다”며, “로봇틱스 가상공학을 전공했고 로봇 의수 얼라이브 핸드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다. 최근 누보 로제타가 성과를 거두면서 에듀테



크 산업에 종사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청년기업을 창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모든 학생을 비롯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로봇이라는 공학이 융복합 공학이다 보니 내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설계부터 구동까지,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경험과 과정이 흥미로웠다”며 “포브스의 선정은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값진 경험들과 환경, 실력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하면서 이뤄낸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5일부터 대중에게 판매가 되는 학습관리 스마트펜 누보 로제타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브스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23개국에서 10개 부문에 걸쳐 30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 문의 : (주)테솔로(070-7938-6283) /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난타 인 안산'

“난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멋진 무대공연이 가능”



문화예술계 사회적 기업 '난타 인 안산'의 김대권 대표.

서울예대 국악과에서 사물놀이를 배웠고 난타로 방향을 바꿨다. 김대권 대표는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게 목표다. “경력 단절여성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공부를 했지만 일자리 얻을 기회가 없던 분들을 교육해서 난타 강사나 공연자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난타 인 안산'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다. 2015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난타 인 안산의 활동 목표점과 사회적기업의 지향점이 같아서다. '난타 인 안산'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부터 재능기부 활동을 해 왔다. 난타를 배우고 싶지만 강사로 부담이 어려운 단체에 재능기부 형태로 난타를 가르쳤다.

'난타 인 안산'의 직원은 2015년 5명에서 2017년 8명, 2019년 11명이 됐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50%~70%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문화예술 전공자들로 기초부터 중급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전국공연과 강사활동을 한다. 난타는 강사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공연무대에 서려면 1년은 돼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까지 할 수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난타 인 안산은 한 해 50회~90회 공연을 한다.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팀 '블랙 킹'에서 한 해 50회, 또 다른 팀 '난타 폴라'에서 20회, 동호회에서 또 20회까지 한 해에 90회 정도다. 팀 블랙 킹은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다. 경기도의 15개 전문예술단체 중 하나로 전국 공연을 다닌다. 팀 난타 폴라는 중·장년 분들로 강사활동을 주로 한다.



난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멋진 무대공연이 가능하다. 지금은 시민예술 시대로 보는 예술에서 시민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시대가 됐다. 난타는 쉽고 신명나게 예술 활동할 수 있는 분야다. 김대권 대표는 “난타 같은 타악기 연주공연은 성취감이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이라며 “하고 싶을 때 도전하시고, 생각만으로 그치지 마시라.”고 했다.

수강생 모집은 3월, 7월, 10월에 있다. 초급 6개월, 중급 6개월 과정과 오전반·저녁반 수업이 진행된다.

◇ 문의 : 난타 인 안산(031-408-830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INTERVIEW

“장애인 최고의 스포츠 보치아, 편견이 아닌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문광호 감독 안산시 보치아팀(안산시장애인체육회)

지난 해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메달 소식을 전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인 보치아는 아시아권이 세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한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더욱 값진 결과라는 평가다. 그 선수들이 바로 안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문광호 감독을 만났다.

Q. '보치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설명하자면 공을 던져 누가 표적에 가까이 붙이는가를 대결하는 경기다. 아주 쉬운 종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하는 경기로 참여하는 선수에게는 매우 고난도 집중력과 훈련이 필요한 경기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스포츠 중에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그동안 없었다. 보치아는 중증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체육 종목이다. 대한민국이 강팀이라 보치아 종목에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다.

Q. 안산시 보치아팀에 대한 소개

자랑스럽게도 현재 국가대표 엔트리 11명 중 6명이나 안산시 팀 선수들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도 안산시 소속이다. 처음에는 안산시 장애인자립



생활센터에서 전담해서 운영했지만, 시에 장애인체육회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현재는 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지원 차원에서 준실업팀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Q. 선수들이나 감독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대회가 있다면?

국가대표에서는 수석코치를 맡고 있다. 보치아 종목에서 그 동안 국제대회 메달이 없었는데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장석준 선수가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장석욱 선수도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만나 아쉽게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2인조 페어부분 최예진 선수도 은메달을 획득해냈다. 지난 아시안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장기적인 계획

일단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아시안게임에 이어 꼭 메달을 획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은 안산시 팀이 꼭 실업팀으로 안정되었으면 한다. 안산시 팀은 전국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안산시보다 규모가 더 큰 시, 도에서 못한 것을 안산시 팀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직장운동부 실업팀이 꼭 만들어져서 우리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안산시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Q. 안산특색을 읽을 안산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중증 장애인 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거나, '무슨 장애인들이 운동을 해'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구나 하는 스포츠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며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보치아는 다이내믹하고 흥미있는 종목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생활체육의 도시 ⑤

안산



안산시, 경기도 수영 메카로 거듭나... 대부도에 전국대회 수영장 건립

지난 5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올 5월 3~4일 이틀 동안 안산 올림픽기념 관 수영장에서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수영

경기가 펼쳐졌다. 대회에서 안산시는 남자 혼계영 200m 결선에서 2위(기록 1분43초88)를 차지했으며, 여자 혼계영 200M 결선에서도 4위(기록 2분4초84)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성적이 대단한 이유는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다른 지역의 실업 선수들 사이에서 연봉을 받지 않는 안산시 선수들이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수영인구는 얼마나 될까. 안산시수영연맹은 생활체육으로 수영을 즐기고 있는 인구를 1만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영은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다.

또 체중 감량, 재활 운동, 체력 증진 등 많은 효과가 있

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존 수영 교육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유치원에서도 생존 수영 시범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부의 방향에 따라 수영 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안산시는 2018년 10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대부도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천968㎡ 규모의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은 성인풀 10레인과 보조풀, 사우나 시설 등이 포함되며, 전국 대회를 열 수 있는 2급 공인 수영장으로 2020년 준공 목표로 지어진다. 총 공사비는 266억 원이며 172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94억 원은 시가 부담한다.

수영 전국 대회가 열리게 되면 하루가 아닌, 길게는 4박 5일 동안 경기가 나눠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1천 명에서 1천500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며, 선수들과 동행하는 관계자들을 포함하면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회를 위해 안산을 찾게 된다. 대부도 수영장이 완공되면 전국 대회 유



치를 통해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 주변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천환 안산시수영연맹 회장은 “안산시 수영 실업팀을 꾸리고 대부도 수영장의 운영방식을 실업팀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안산시 수영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KBS 1TV(6월 18일)
생방송 6시 내고향 '안산시편'



OBS 경인TV(6월 17일)
1천억·가맹점 1만 호 '활짝'



티브로드 한빛방송(6월 21일~7월 4일)
감성여행 안산 대부해수길 188리

안산시-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교차 홍보 위해 '맞손'

영동고속도로 요금소 방호벽에 핵심사업 · 축제 · 관광 등 시정 홍보

안산시는 6월 18일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지사장 박홍진)와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교차 홍보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주요 지하철역사와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LED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라디오, 인터넷 포털 등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 로에도 시정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서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안산 · 서안산 · 군포요금소(TG) 등 3곳에 있는 방호벽 9곳에 매년 600만원을 들여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보내용은 안산시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등 정책부터 ▲다문화특구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9경 ▲김홍도 축제 등 안산의 주요사업과 관광거리 등을 시기에 맞게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시정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LED전광판(2곳), 버스정류장 사이니지(3곳), 안산터미널 TV자막(2곳) 등에는 한국도로공사 주요사업 등의 내용

을 담아 상호간의 홍보를 적극 돕는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안산시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가 함께 추진하는 최초의 홍보사업으로, 시는 고속도로 이용객과 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시간에 집중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안산시가 자랑하는 관광자원과 다양한 축제, 다문화특구를 포함한 시정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안산시가 유기적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와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45)



원곡동에서 맛보는 세계음식

안산시유튜브'원곡동 다문화특구 생방송'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이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

6월 18일 원곡동의 러시아 음식점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는 안산시 홍보대사 개그맨 이문재, '미녀들의 수다' 출신의 방송인 에바, 안산시청 유도팀 이현경 코치가 출연해 원곡동 다문화 거리의 다

양한 음식을 직접 먹어보며 이국적인 맛을 전했다.

출연자들은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중국의 마라통샤, 태국의 뽕양꿍, 러시아 샤슬릭, 인도네시아 린탕 등 원곡동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소개하며, 음식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방송인 에바가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직접 준비해 출연자들에게 입혀주며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고려인 3세인 식당 매니저가 등장해 간단한 러시아어를 소개하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이 먹던 음식인 '당근김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에게 쿠키를 내는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안산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안산시 원곡동은 예전의 원곡동이 아니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색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마을이다"며 "108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글로벌 도시,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은 유튜브에서 '안산시유튜브'를 검색해 최근 방송콘텐츠로 볼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3126)

'나도 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

'안산시 핵꿀잼 명소 모아보기' 최우수 선정



안산시는 '안산에서 핵꿀잼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안산시 명소를 소개한 '안산시 핵꿀잼 명소 모아보기'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시는 공모전에 참여한 32개의 작품

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작품 외에도 'Fly with AnSan'을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1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안산시 핵꿀잼 명소 모아보기'는 호수공원과 안산문화광장, 노적봉공원 등 안산의 명소를 발랄하게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Fly with AnSan'은 드론 촬영을 통해 대부도 누에섬 풍력발전기부터, 낙조 전망대, 탄도항 등 대부도 일대와 호수공원, 안산의 야경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시는 7월 1일 월례초회를 통해 최우수 작품 수상자에게 상금 70만원과 안산시장상을 전달하는 등 수상자들을 초청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기획부터 제작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의 시선으로 안산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을 자신의 개성을 담아 자유롭게 만들도록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초등학교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으며, 안산9경(景) · 국제거리축제 · 안산시 시내 전경과 야경 등 다양한 안산의 볼거리가 브이로그(Vlog), 먹방, 축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출품됐다. 시 관계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연령층에 관계없이 공감대를 불러오는 작품들이 넘쳐났다"며 "출품된 작품들은 안산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안산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3759)

서한동 (주)실드그린 대표

“안전한 전자파 환경, 기술기반 실드그린이 만든다!”



(주)실드그린 서한동 대표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자파와 어싱(Earthing) 기술 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생산 제품과 서비스가 차별화된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통신, 전기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어느 때보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대에 전자파차단 금속섬유와 전자파차단 침구, 전자파차단 임신부용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전자파 측정 및 컨설팅을 하고 있는 (주)실드그린 서한동 대표를 만났다.

Q (주)실드그린은 어떤 회사인가?

실드(Shield)는 유해 전자파 차단, 그린(Green)은 건강한 자연 환경을 의미한다. 실드그린은 전자파 차단 소재 제품 개발, 전자파 측정 및 컨설팅, 실드룸 등 현장 경험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업이다.

2014년 실드그린 브랜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전자파 차단, 어싱테라피 제품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2015년 전자파차단 섬유 특허를 출원했고, 2016년 (주)실드그린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경기도 우수상품에 선정되고 경기도 주식회사 인증도 받았다.

전자파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대에 실드그린은 친환경 금속섬유 소재를 개발해 전자파차단 침구, 전자파차단 임신부용품 등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다.

Q 주요 생산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싱테라피는 무엇인지?

어싱(Earthing) 테라피(Therapy)는 인체를 지구(땅)과

연결하는 자연 건강 요법을 말한다. 전자파 노출 직업, 임신부나 투병중인 분, 수험생, 전자파 과민증을 가진 사람,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니어는 특히 어싱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중계기, 휴대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송전선, 배전반, 전선, 컴퓨터, 전기장판 등 전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통해 전자파가 발생한다. 전자제품과 전기에 노출되면 적혈구 마찰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점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싱테라피는 항산화 작용으로 전자파로 인해 산화되는 인체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실드그린 제품을 이용해 전자파를 차단하고 어싱테라피 케어를 할 수 있다.

실드그린 제품에는 전자파 차단, 어싱테라피 기능이 있는 각종 크기의 패드, 침구, 앞치마, 의류(임산부 의류) 등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전자파 차단 자재인 페인트, 벽지, 섬유, 필름 등도 개발, 판매하고 있다.

Q 제품들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

국내에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대부분 기술 베이스가 없이 시작한 경우다. 예를 들면 봉제업 종 회사에서 전자파 차단 섬유를 사서 이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반면 실드그린은 철저히 기술기반이다. 우리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과학기술전문서비스업’이다. 단순한 봉제회사가 아니라 전자파 차단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이런 기업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실험실 내에서만 하는 소재 개발은 물론 현장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실드그린은 강점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

개인적으로 전자파 안전 관련 국가 심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위원회 등에 심사업무를 하러 가면 업계 관계자는 유일하다. 다들 학계에 계신 분들인데 내가 유일하게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학문과 이론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100%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개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며 차별화된 실드그린의 강점이다.

Q 경영철학은 무엇인가?

회사를 경영하며 지역사회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회사가 어려울 때 안산시의 도움을 받아 자리 잡는 과정이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수익이 조금 더 나게 되면 사회에 환원할 고민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이다.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⑩

진열되어 있는 (주)실드그린 생산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잘 살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움 받은 만큼 지역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꼭 가져야 하는 생각이라고 본다. 그 작은 실천으로 실드그린은 가능하면 지역 시민들을 채용하려 한다.

그 다음은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가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직원들의 출산휴가도 꼭 지키고, 퇴근 시간이 되면 무조건 퇴근 시킨다. 회사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나. 다른 근사한 경영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의 본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을 탄탄하게 키워 실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Q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이후에는 자연·건강 케어 분야로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전문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꿈꾸는 것이다. 외국에는 전자파 사안을 환경 분야로 인식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산업 분야로 인식한다.

전자파는 사용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 없기에 가능한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실드그린의 전자파 측정기술과 컨설팅 역할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어싱테라피를 통한 건강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단기적으로는 이 좋은 제품들이 널리 많이 팔리고 아마존 사이트의 베스트 제품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목표다.

◇ 문의 : (주)실드그린 (031-500-481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생산품을 직접 설명해주고 있는
서한동 대표

야~!! 여름이다~!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 7월 19일 개장

경기도미술관, 화랑오토캠핑장 등 여름철에 가면 더욱 좋은 곳!

수경 시설은 무더위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3면 참조) 수경시설 외에도 지난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시민이 방문한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안산의 대표 물놀이시설로서 7월 19일 개장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꼭 물이 있어야만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미술관과 단원미술관을 방문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기획전 등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경기도미술관과 단원미술관은 화랑유원지와 노적봉에 위치해 있어 나무 그늘 아래서 피크닉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화랑오토캠핑장도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평일에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평일에 캠핑장에서 하루 보낸 후 바로 출근을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름철, 안산에 가볼만 한 곳을 정리해봤다. 집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경기도미술관



창조, 자생, 참여가 실현되는 수도권 대표 미술관.
1천350만 경기도민을 위한 미술공간

으로 경기도의 미래 자산이 될 현대 미술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와 교육 활동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며 수도권 대표 미술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문의: <http://gmoma.ggcf.kr> / 031-481-70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관람: 오전 10시~오후 7시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대부도

◇ 시화호 조력발전소&달 전망대

<http://tlight.kwater.or.kr> / 032-890-65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927

◇ 대부해솔길: 걷기 좋은 '바다와 소나무'의 길

<http://haesolgil.kr> / 관광안내소_1899-17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일대

◇ 구봉도 낙조 전망대: 석양이 아름다운 출사 명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 23

◇ 누에섬등대전망대: 서해안을 한눈에 보는 조망등대

032-886-0126/29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7-156(선감동)

◇ 경기창작센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배움터

<https://gcc.ggcf.kr> / 032-890-48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101-19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서해안 갯벌 생태계와 어촌의 삶을 한눈에

032-886-0126 / 29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7

◇ 복합문화공간 유리섬: 유리공예 체험과 미술관 제공

<http://www.glassisland.co.kr> / 032-885-626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 종이미술관: 종지와 미술을 소재로 한국 전통의 문화를 체험

<http://www.종지미술관.kr> / 032-887-06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233

다문화마을특구



국경없는 마을, 제2의 이태원.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거주지인 다문화마을 특구에는 다문화음식거리와 세계문화체험관이 있어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음식거리

장소: 안산역(4호선) 1번 출구 맞은편

세계문화체험관(031-481-3732)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5

관람: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도심 속 야외수영장과 산들바람과 수영 약 3만4천㎡에 성인풀과 유아풀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다.

운영기간: 7월19일~8월25일

※ 운영기간 중 별도 휴장일 없음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이용요금: 성인 5천원 / 어린이·노인 3천원
청소년·군인 3천500원

문의: <http://www.ansanuc.net> / 031-8085-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3번지(호수공원)

노적봉 공원



자연석으로 만든 폭포 쉼터.
2016년 10월 재탄생한 자연석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함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도넛지가 마련되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산39-1

화랑오토캠핑장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해 주변의 숲과 호수, 경기도미술관과 어우러진 대표 힐링공간이다. 매월 1일 오후 1시에 다음달치 예약받는다.

문의: <http://camp.ansanuc.net> / 031-481-9800~2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

성호기념관



안산이 낳은 위대한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 기념관

성호 이익 선생이 생전에 남긴 친필과 저서 등 성호의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영상관 및 실학정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http://seongho.iansan.net>
031-481-2574~5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관람: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단원미술관



조선후기 천재화가 김홍도의 유산 조선후기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문화쉼터 '단원미술관'. 어린이들의 미술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상설체험 교육공간인 '상상미술공장'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http://danwon.ansanart.com>
031-481-0505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관람: 오전 10시~오후 6시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안산 와~스타디움&안산그리너스FC



시민이 행복한 구단! 관중의 함성이 가득 찬 경기장! 안산그리너스FC는 안산 와~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홈경기가 있는 날 안산 와스타디움에 방문에서 경기를 직관하며 무더위를 이겨보자.

문의: <https://www.greenersfc.com>
031-480-2002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초지동)

홈경기 일정: (vs 대전) 7.21.(일) 오후 7시 / (vs 아산) 7.27.(토) 오후 8시

안산갈대습지공원



자연의 회복력으로 인해 태어난 생태의 보고
도심천 하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갈대를 비롯한 수생 식물을 식재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다.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물론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들이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공원이기도 하다.

문의: <http://wetland.iansan.net> / 031-481-3810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

관람: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설날연휴, 추석당일 및 기타사정에 따라 휴장 가능
※ 견학신청자에 한하여 생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

최용신 기념관



농촌계몽운동, 독립운동가 최용신 기념관
심훈 소설 '상록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존 인물인 최용신(1909~1935)을 기리고자 안산시가 건립한 공립박물관으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다.

문의: <https://choiyongsin.ansan.go.kr>
031-481-3040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

관람: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안산시티투어 힐링여행 6월 1일부터 본격시작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에 가보자



안산시 관내 중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입법활동 체험을 위한 2019년 안산시 청소년의회’팀이 8일 안산시내권 정기투어에 참가해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가 6월1일부터 안산시티투어 ‘힐링여행’ 운영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문화·예술·생태 탐방을 특화한 ‘안산 시내권’ 여행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의 작품들을 만나는 ‘단원미술관’ ▲실학의 선구자 성호 이익의 검소한 생활을 만나는 ‘성호기념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 등을 체험하는 코스로 짜였다. 대부도 여행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달 전망대)’ ▲바다와 함께 걷는 아

름다운 기억이 머무는 곳 ‘대부해솔길’ ▲모세의 기적 ‘탄도바닷길’ 등을 체험하는 힐링생태 코스로 구성돼 인기가 높다.

또한 연간 20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대송습지’도 시티투어를 통해 방문할 수 있고, 15명 이상이 예약하면 요트, 갯벌, 도예, 승마, 유리공예, 종이공예 등 다양한 체험과 원하는 코스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코스도 준비를 마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시티투어는 안산시내와 서울에서 출발한다. 안산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안산 중앙역 2번출구 시티투어 탑승장에서 출발하며, 서울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한다. 시티투어 버스는 15명 이상 예약이 돼야 운행되며, (주)온누리관광여행사(1899-7687)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문화된 스토리텔러를 모집해 친절환 서비스는 물론, 눈과 귀가 즐거운 의미 있는 여행을 위해 안산의 스토리 있는 역사가 곁들여지며, 매주 수·토요일 시내권 정기투어를 실시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6천200여 명이 찾은 안산시티투어는 92.1% 높은 만족도로, 올해도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성비 높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2019년 올해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시는 수도권에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주)온누리관광여행사(1899-7687) /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

“친구들과 한옥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설레고 좋아요”

한 여름,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고택에서의 특별한 하룻밤 어떤가요?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는 고택 마루에 걸터앉아 지그시 눈을 감으면 한 순간 과거로 돌아가, 이곳에서 살았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특별한 경험을 맛 볼 수 있다. 멀리서 눈으로만 바라보던 단순하고 수동적인 문화재 감상에서 벗어나 그 곳에서 직접 1박2일을 보내며 잠들어 있던 문화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협동조합 걸쳐75는 진주 유씨 종택인 청문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 부곡동 소재)에서 ‘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라는 생생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당은 진주 유씨 16세손인 유시회가 건립한 가옥으로 18세기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태동한 공간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조선시대 4대 서고의 하나로 추정되는 청문당의 만권루는 기호 남인들(조선시대 4대 당파 중 경기도를 근거지로 하는 남인)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서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청문당에서 시공을 뛰어넘는 시간여행과 운치 있는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점들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6월 캠프는 15일과 16일 주말동안 진행됐다.

집결시간은 15일 오후 2시, 안산화랑유원지에서 단체버스를 이용해 이동한다.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으로 사업장들이 들어선 점은 아쉬웠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청문당에 들어서는 순간 고즈넉한 한옥의 운치가 그대로 전달돼 바깥 세상과는 잠시 단절되는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자형 한옥 마당의 형태로 안채와 사랑채, 마당 한쪽에 있는 오랜 우물, 뒷마당에 오르면 지붕을 뛰어넘는 오래된 모과나무가 운치를 더한다. 프로그램은 알차고 다양하게 구성됐다.

먼저, 원일중학교 역사교사 신대광 선생님의 미니강좌에서 청문당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청문당을 둘러봤다. 이어서 청문당 인근의 고택 경성당까지 둘러봤다. 경성당은 아직도 진주 유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친구들끼리만 참가했다는 본원초등학교 6학년 세 친구들은 “청문당과 경성당을 둘러보니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로 와있는 것 같다. 자연 속에 오니 편안하고 친구들과 한옥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설레고 좋다”며 활짝 웃었다.

극단 동네풍경이 펼친 연극공연도 이어졌다. 한복을 차려입고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된 공연



에 깊이 빠져드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성호사설에 나온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을 만드는 미술놀이, 고택음악회, 저녁식사를 마치고는 여유롭게 즐기는 영화감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안산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사회협동조합 걸쳐75 김태현 대표는 “안산에 청문당과 경성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여했다가 놀라는 분들이 많다. 오랜 도시지만 안산에 이런 의미 있는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관심 갖길 바란다. 시민과 함께할 수 있게, 지역의 문화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1박2일 캠프와 하루캠프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5월부터 진행된 ‘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

1박 2일 캠프 일정 : 8/24~25, 9/7~8

하루 캠프 : 7/6, 7/13, 8/17

◇ 문의 : 안산시청 문화예술과(031-481-279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소식通

화랑오토캠핑장, 캠핑과 주말 공연

10월 4일까지 매주 금·토 저녁 공연 진행

안산시는 도심 속 힐링 명소인 화랑오토캠핑장을 찾는 야영객에게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자 주말 공연을 마련했다. 공연은 6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연휴기간을 제외한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캠핑장을 이용하는 야영객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재즈밴드, 발라드 가수팀, 퓨전국악, 뮤지컬 갈라 등 총 7개 팀이 참여하여 다채롭고 낭만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6월 중으로 화랑오토캠핑장 내 조롱박 터널이 준공되고, 친환경 수로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캠핑장을 방문하는 야영객은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9800~2)

'멀티환승 정류소' 설치

하루 평균 2천명 이용 한양대입구 정류소

안산시는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한양대입구 정류소에 '멀티환승정류소'를 설치했다. 9천만 원(도비 2천700만·시비 6천300만)을 들여 설치한 33m 길이의 멀티환승정류소에는 노선별 승차안내소가 구별돼 있으며, 승차 유도 블록 등의 기능도 갖춰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를 맞대고 마련된 정류소 내 의자 앞에 설치된 통유리는 자동차 매연 감소 효과도 있어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일반·좌석·시외·직행버스 등 16개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61)

'퇴비 무상 공급'

접수순으로 공급, 빨리 신청하세요!

안산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무상으로 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고 있다.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10년부터 가동을 시작, 하루 평균 약 167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며, 9천500여 톤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무상으로 퇴비를 받고자하는 농가는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031-408-5344)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순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부산물 비료(퇴비)를 관내 농가 및 주말농장에 직접 무상으로 배송 공급해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토질 개선효과에 도움을 주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2254)

안산에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만나다!

'아름다운 100인 : 안산에서 특별함을 만나다' 전시회 7월 12일 개막



19일까지 안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에서 '더 스페셜아트 블루윙스'와 한국자연미술협회가 지역 내 전시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화가들의 원시적이고 아름다운 예술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를 준비 중인 박은주 '더 스페셜아트 블루윙스' 대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발굴해 이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활동환경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의 기회를 자주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등 소수자 예술인들에게 전시 기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고 한국자연미술협회(회장 유미경)가 지원하는 '아름다운 100인 : 안산에서 특별함을 만나다' 전시회가 7월 12일부터

박 대표는 이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참여하게 됐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 전시회에는 더 스페셜아트 블루윙스 외에도 스페셜아트(대표 김민정), 로아트(대표 서은주), 밝은방(대표 김효나)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발달장애인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예술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아름다운 100인 전시회는 또한 장애인 화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국내 및 미주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자연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응원의 의미로 함께 전시된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사회통합을 예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전시회를 주관하는 '더 스페셜아트 블루윙스'는 안산시에 기반을 두고 발달장애청년, 정신장애인, 폭력피해자 등에게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활동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예술 활동 지원단체다.

◇ 문의 : 더 스페셜아트 블루윙스(010-8766-065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발달장애인 부모의 소원 아시나요?

부모 부담 덜고 자립 돕는 프로그램 절실



김은영(가명, 48) 씨는 외동아들(22)이 장애를 안고 있다. '5번 염색체 돌연변이로 인한 중증 발달장애', 아들의 병명이다. 아들은 항정신성 약을 복용한다. 약이 안 맞는 건지 약을 먹고 나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자해 행동을 보인다.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이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아들은 선진학교 졸업 후 아무데서도 받아주질 않아 갈 곳이 없었다. 집에만 있는 아들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엄마인 김은영 씨의 몫이다. 그동안의 삶도 나락의 연속이었지만, 하루 종일 혼자서 아들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 1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릴 정도로 지치게 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하다하다 안되면... 그런 생각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전행동으로 기관에서 감당이 안됐던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김은영 씨는 2019년 2월에 시작해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을 아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사업수행기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란 팀장은 "경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래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정에만 계시는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사각지대처럼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며 "안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달 장애 자녀의 성인이가 되면 부모는 늙어간다. 그럼에도 부모의 소원은 그 자녀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거라고 한다. 부모로서 자신들의 사후 자립이 어려운 자녀의 안위를 걱정해서 나오는 말이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박경혜 과장은 "발달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온전히 부모들이 감당하게 국가가 방치한 것도 무엇보다 죄송한 일"이라며 "안산시가 최근 시도한 '중증 발달장애인 긍정행동 강화 프로그램' 같은 사업이 계속 시도 되고 정착 돼 쌓인 노하우를 지역에 전파해 인프라가 확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안산시는 갈 곳 없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던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환경구조화와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가족들에게는 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장애인복지관(031-403-007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손으로 빛는 예술 · 기술의 세계

도예체험학습지도사... 취미생활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흙을 빚어 찻잔 · 화병 · 접시 생활자기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유치원 · 초 · 중 · 고교 학생들과 나누는 도예체험학습지도사도 그 중 하나다. 안산대 평생교육원은 시 위탁사업으로 매년 4~6월 도예체험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6월13일에는 12주 과정을 마친 교육생 20명의 수료식이 있었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세종도예원 이수연 명인의 지도로 흙을 가늘고 길게 말아 쌓아 올려 자기를 빚는 '코일링 기법'부터 판 성형 · 채색 · 상감 · 투각 · 백자 · 청자 · 물래 · 유약시수 · 도자기 굽기까지 배웠다.

도예를 처음 접한다는 교육생 최명복(55 · 신길동) 씨는 "명인 선생님을 만나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수료생들은 강사활동 오리엔테이션과 도예체험학습참관 수업까지 마치면 7월부터 도예체험학습지도사로서 활동한다.

다음은 지난해 이 과정을 마치고 강사로 활동했던 안영수(61 · 해양동)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그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수업에 참여하던 어린 학생들의 아무진 고사리 손이 기억에 생생하다고 했다.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Q. 도예체험학습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계기는?

80년대 초 취미로 2년 정도 도예를 했었다. 잊고 살았는데 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를 통해 도예체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공고를 보고 흙을 좋아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흙을 빚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느낌은 황홀하기까지 하다. 즐거운 일이다. 지난해는 정년을 앞둔 안식년이어서 훌가분한 마음으로 교육도 받았고 강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Q. 재료, 도구 등 수업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세종도예원에서 수업할 학교로 재료(흙, 손물레)들을 가져다 놓고, 수업이 끝나면 만들어진 작품들을 가져가 가마에 굽는 작업을 해서 다시 학교로 보낸다. 강사들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Q.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업대상인데 강사로서 어려운 점은?

없다. 어린 아이들은 일종의 놀이수업으로 받아들인다. 흙만 한 장난감이 없고,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느껴진다. 그럴 때면 절로 강사로서의 사명감이 커진다.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고등학생은 진로체험활동의 하나로 도자기수업에 참여한다. 흙 판에 글과 그림을 그려 장래 희망, 꿈을 새기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 문의 : 안산대 평생교육원 도예체험학습지도사회
(010-3759-640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단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파티 열어드려요”



파티 콘셉트에 맞춰 장소 및 소품 무료 지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친구 또는 가족간 파티를 지원하는 '서프라이즈 파티' 사업을 매달 진행한다.

청소년 파티 지원사업 '서프라이즈'는 파티를 원하는 청소년의 파티 콘셉트에 맞춰 파티용품, 장소, 간식 등 파티 소품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오까지 파티를 원하는 청소년이 사연을 접수하면, 같은 주 토요일 단원청소년수련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자가 공개된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9~24세 관내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팀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유아~성인 가족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성인팀이다.

접수 방법은 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ansanyouth.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단원청소년수련관(031-412-17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⑥



삼사



안산에는 108개국 8만7천여 명의 외국인 살고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원곡동에는 만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다문화특구가 있다. 이곳은 외국인들의 생활공간이자 여

권 없이 즐길 수 있는 세계여행 장소이다. 최근 안산시는 '세계의 맛 안산다문화음식거리' 책자 2천부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내 ·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외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책에는 나라별 음식의 특색과 업소별 대표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음식문화개천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삼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이다. 빵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사를 구입해서 먹어보면 이곳이 흑시 만두 맛집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든다. 빵 속에 고기와 양파 등이 담겨있어 보기에는 고로케와 비슷하지만 맛은 고기만두에 가깝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해 해산물이나 생선요리 보다는 육류를 즐겨 먹는 곳이다. 무슬림이 많아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선호하고, 인접한 러시아와 몽골의 영향을 받아 조리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추위가 길고 건조한 지역의 영향으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많다. 삼사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인도의 전통 튀김만두 '사모사'가 중앙아시아로 건너가 변형된 메뉴라는 이야기도 있다. 둘을 비교해서 먹어보는 것도 세계 음

고로케와 만두사이

식을 즐기는 한 방법이다.

안산다문화음식거리에 있는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음식 전문점 '임페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사는 소고기로 이뤄졌으며, 삼각형 모양의 큰 삼사(3천500원)와 사각형 모양의 작은 삼사(2천원)가 판매된다. 큰 삼사의 속이 더 푸짐해 작은 삼사보다 맛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현지에서 가장 선호하는 양고기가 아닌 것이 아쉬울 수 있다.

삼사를 만드는 방법은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 빚는 것처럼 얇게 민 후 녹인 버터를 골고루 묻혀 달걀말이 하듯 돌돌 만든다. 페이스트리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길어진 반죽을 한입 크기로 작게 잘라 다시 한 번 밀어 소(고기, 감자, 양파 등)를 넣고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주로 삼각형 모양이다. 만든 결과물을 오븐이나 가마에 구우면 끝이 나는데, 속에 넣은 재료에 따라 고기 삼사, 감자 삼사, 호박 삼사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 진다. 특히 탄두르(화덕)에서 직접 구운 전통 삼사는 기름기가 짙 빠져 우리 입맛에 맞으며 최고의 삼사라고 여겨진다.

◇ 문의 : 임페리아 다문화거리점(031-495-4414)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높아지는 해수 온도 비브리오패혈증 조심하세요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인천·평택 등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성간질환, 당뇨, 알코올중독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는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 낚시꾼 등이 바닷물과의 접촉이 예상됨에 따라 무작위로 해수를 채취,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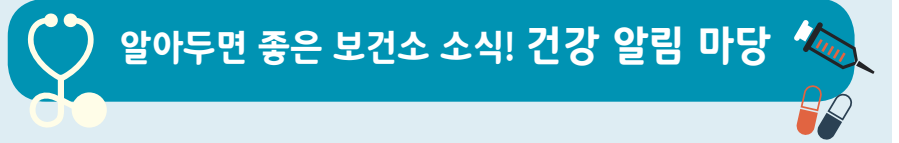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위험이 높다.

감염되면 1~3일 안에 발열·오한·혈압 저하·복통·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3명 중 1명꼴로 저혈압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에 주로 하지에 부종으로 시작한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뒤 점차 범위가 확대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되는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충분히 익혀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닷물 접촉 피하기 ▲어패류는 5℃ 이하 저온보관·85℃ 이상 가열 처리해 먹기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 먹기 ▲날생선·어패류 요리 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기 ▲장갑 착용한 뒤 어패류 다루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3건 검출됨에 따라 서해와 맞닿은 안산시도 주의가 당부된다”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99) 또는 단원보건소(031-481-6364)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환자실터

- ◇일시: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12시 ◇장소: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 대기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기자
- ◇운영기간: 주5회, 3개월
- ◇운영내용: 원예·음악·미술·작업·운동 치료 및 건강이음 등
- ◇문의: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2~3)

치매환자 가족교실(헤아림)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장소: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상: 관내 치매환자 가족 ◇운영기간: 주1회, 총 8회
- ◇운영목적: 교육을 통해 치매의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행동에 대한 대체방법 습득
-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치매관련 서비스 및 알짜정보
- ◇문의: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1)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아름드리)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장소: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상: 관내 치매환자 가족 ◇운영기간: 주1회, 총 12회
- ◇운영목적: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
- ◇운영내용: 치매환자가족 정보 제공 - 연극심리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
- ◇문의: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1)

에이즈, 의심된다면 보건소에서 익명 검사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시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걱정이 증가함에 따라 걱정대신 콘돔사용과 에이즈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나, 에이즈는 감염되더라도 12주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시점으로부터 12주가 지난 뒤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이즈 감염경로는 성접촉, 감염된 주삿바늘, 수혈이나 혈액제제 등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물, 악수, 포옹, 가벼운 키스, 술잔 돌리기, 공중목욕탕, 기

침, 재채기, 음식물 같이 먹기 등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도입돼 꾸준한 치료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임에 따라 성관계시 콘돔사용과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42) 및 단원보건소(031-481-3480)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행 전	01 여행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확인하기! * 국가별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 -해외감염-국가별 질병정보 및 모바일(m.kdca.go.kr) -해외감염-국가별 질병정보에서 확인 가능	02 모기 기피용품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 준비하기!
여행 중	03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연기 고려하기!	04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주의사항 및 태아 건강상태 체크하기!
여행 후	01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 이용하기! 03 기피제는 허용량을 준수하여 신체 노출 부위 및 옷에 얹게 바르고, 눈,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기! * 기피제 사용전 동원된 설명서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통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02 외출시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착용하고, 숙소에서는 모기장, 모기향 등 사용하기! 04 야외 활동시,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방문하지 않기!
	01 귀국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 알리고 진료받기! 0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남·녀는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콘돔사용 또는 성관계 하지 않기! * 지카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 가능	02 해외여행 후, 헌혈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04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임신부는 산전진찰을 통해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 모니터링 하기!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안산동

안산동 학부모 모임 '온새미로', 열린공간 '들락날락' 개소



6월 10일 안산동에서 온새미로 거점공간이 문을 열었다. 그동안 안산동에서 '역사와 생태가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모토로 활동해온 온새미로 회원 17명이 뜻을 모아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내부 공사를 진행해 개소식을 열게 됐다.

온새미로는 안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숲속놀이터'라는 기능별 단체에서 시작, 2016년 마을로 그 활동을 확대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학부모 스스로 안전한 마을, 문화가 있는 안산동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온새미로는 그간 안산동의 문화, 생태, 역사를 알리는 작업을 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전달과정의 불편함과 회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거점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온새미로 회원 17명은 각자 경비를 내 보증금을 마련해 공간을 만들고, 테이블과 의자는 회원들이 배운 목공기술로 직접 만들었다. 인테리어 소품과 수익사업을 위한 물품들 또한 회원들의 솜씨로 채워졌다. 거점공간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들락날락'이 채택됐고 안산동 주민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김은주 온새미로 대표는 "안산동 아이들이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안산동 주민 누구나 배움의 터로 삼을 수 있으며, 온새미로 회원들이 내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며 들락날락을 소개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온새미로뿐 아니라 안산초의 숲속 놀이터, 안산동 자원봉사 거점센터가 함께 안산동을 위한 활동을 연계하고 안산시 평생학습관으로부터 우리동네학습관을 지정받아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들락날락은 안산동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올해 목표를 거점공간 안정화와 안산읍성 복원 모니터링이다"며 "거점공간은 지속이 중요한데, 들락날락의 운영지원금이 없기에 수익사업을 뭘 할까 생각중이다. 후원도 받고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충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읍성 복원 공사 모니터링과 자료화에 대해서는 "역사복원이 단지 행정 지시로만 이뤄지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나서야 된다"며 안산동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나타냈다. 온새미로는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자연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행복한 안산동을 만들기 위한 온새미로의 행보는 그 뜻대로 계속될 것이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월피동

창작놀이터 WITH, 우리 동네 도란도란 꽃피네요.



해피바이러스 마을공동체는 6월 15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작놀이터 WITH'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은 문화를 사랑하는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장들의 진심어린 축하와 주민들의 잔치로 어우러졌다.

창작놀이터 WITH는 서울예술대학과 상생 협력해 자생적 문화마을을 형성하고, 마을공동체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노후로 문화예술분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마련됐다.

해피바이러스 마을공동체는 극단 '이유'가 2019년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돼 연극의 저변확대와 아동, 청소년 진로, 인성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극단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창단 6주년을 맞아 더 다양한 활동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복합문화공간 창작놀이터 WITH를 마을공동체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추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마을의 변화에 중심이 된다.

김종숙 극단 이유 대표는 "안산에는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해피바이러스 마을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약속한다"며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창작놀이터 WITH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극단 이유는 공연 분장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지구인 외계인 우주인, 지구평화일기, 연극 꿈의 학교, 마지막 그날을 기억하며, 투명인간 차오름, 푸름이와 행복의 빛, 동네방네 갈갈갈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부곡동

나눔으로 더불어 행복한 '부곡아너소사이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나눔 복지 공동체 영예의 회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월 10만 원씩 일 년 넘게 꾸준히 후원한 기부자들을 복지관 나눔 복지 공동체 영예회원으로 초청해 '부곡아너소사이터'를 열었다.

6월 12일 복지관은 아너소사이터 문 여는 날을 마련해 고봉진·권영숙·김기동·김기원·김형문·남영태·이상순·장다연·성동규·이종인·전재근·홍영주 등 영예회원 12명에게 영예회원증을 전달하고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설명했다.

김기동 아너소사이터 대표는 "부곡복지관은 작은 감동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며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슬기로운 일들을 추진하신다.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참여 동기를 말했다.

아너소사이터 회원들의 기부금은 따로 모아 사용된다. 복지관의 사업영역인 교육·문화·나눔 가운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받아 사용할 계획이다. 복지관의 현재 추진 사업들은 경로당 할머니와 어린이집 손자·손녀를 잇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환상의 짝궁', 마을주민 자조모임 '안전드림', 삶에 풍요를 더하는 평생학습 '두 번째 서른' '사랑글샘학교', 마을축제 '부곡 세대 공감 한마음 축제', 함께 나누는 여가활동 '부곡 컬처랜드' 등이 있다.

아너소사이터 회원들은 후원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보고도 받게 되면서 단지 후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자비실천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 만들기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금전적 후원뿐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경륜 속에 녹아 있는 삶의 지혜도 함께 후원하는 셈이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원곡동

원곡동행정복지센터, 트릭아트 설치 및 어르신 짜장면 대접



원곡동행정복지센터는 센터 입구 벽에 트릭아트를 그렸다.

원곡동 다문화거리인 안산구경 중 한 곳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공간을 이용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트릭아트존을 마련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늘 맛있다고 생각했던 센터 입구에 활기가 느껴져 흐뭇하다. 사자상 트릭아트존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공간이 될 듯하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문화거리와 연계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곡동행정복지센터는 다시 찾고 싶은 원곡동 마을이 되도록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꾸준히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멋지고 독특한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사자가 튀어 나올 것 같다”, “사자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신기하다”, “멋진 그림 덕에 원곡동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등의 즐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벽화 트릭아트는 볼거리 제공은 물론, 원곡동 마을에 스토리를 입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곡동행정복지센터는 6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르신 점심으로 짜장면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

안산효인성교육원, 인성아카데미2기 원우회, 원곡동 지역 주민자치회, 남녀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봉사로 마련된 나눔 행사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을 제공하기 위해 면은 미리 뽑아 오고, 소스는 즉석에서 만들었다. 짜장면과 함께 제공된 떡과 과일, 재능기부 악기 공연 등은 더욱 풍성한 나



눔의 자리로 만들었다.

행사 관계자는 “효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르신들과 함께 한 의미 있는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며 “짜장면을 만들어 후원해 주신 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원봉사를 해주신 관내 직능단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와동

초지·백운동

공원 안에 또 정원이? 와동 '와리 정원' 완공 와동 생태곤충체험관의 체험코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 곤충체험관 일원에 와동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거점정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와리정원'이 완공됐다.

와동하면 떠오르는 '곤충'을 테마로 조성된 '와리정원'은 와동의 옛 지명과 유래를 반영해 이름을 지었으며, 정원 내부에는 기와장식, 실제 곤충이 살 수 있는 곤충아파트, 장수풍뎅이 등 곤충조형물이 배치되어 기존 생태곤충체험관의 체험코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페퍼민트, 라벤더 등 후각을 자극하는 허브화초 배치와 시원한 왕벚나무 터널, 장미 덩굴 입구 조성 등 기본설계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그리고 기존의 소나무그늘과 야생화를 그대로 살린 60여m의 정원 산책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와동장은 “이번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앞으로 주민참여 초화류 식재와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남은 단계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단지 현장민원실 운영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과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6월 24일부터 초지역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에코·파크·메트로 단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에코단지 관리사무소 내(지하1층)에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동 현장민원실은 백운동 관할 에코단지(1천244세대)와 초지동 관할 파크단지(1천

238세대) 및 메트로단지(1천548세대) 등 총 3개단지 4천30세대가 동시 입주함에 따라 행정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별도 근무자를 편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확정일자 부여 등 4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보 등을 제공해 다양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백운동행정복지센터(☎031-481-6606), 파크 및 메트로단지는 초지동행정복지센터(☎031-481-6607)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 지참 시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마, 아빠 도시숲에서 함께 놀아요!

2019 유아숲 생태체험 한마당 '도시숲 어울림 속 지저림'

6월 8일 안산호수공원에서 안산환경재단 주관으로 2019 유아숲 생태체험 한마당이 펼쳐졌다. 안산환경재단은 2017년부터 3년째 안산의 도시숲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유아숲 생태체험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선착순 신청을 통해 유아와 학부모 251명, 안산시 어린이집, 유치원등 29개 기관 관계자와 강사들이 참가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는 부모와 아이들이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풀밭에 편히 앉은 채 전주호 안산환경재단 대표의 개회식으로 시작했다.

전 대표는 "생태체험 한마당이 도시 속 건물 안에서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숲에서 고민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며 "안산환경재단은 좋은 숲, 맑은 공기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숲센터의 안만홍 센터장의 안내로 체험이 진행됐다. 호수공원 풀밭 곳곳에 배치된 숲체험 전문강사들의 도움으로 물순환 놀이, 거미줄놀이, 밧줄놀이, 미세먼지 OUT, 자연 물놀이 등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거미가 돼보기도 하고, 비도 되고 지하수도 되는 물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미세먼지 OUT 퀴즈를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즐거워했다. 안만홍 도시숲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지구 살리기다"며 "재미와 의미를 살리면서 지금 생태체험 한마당에 온 아이들이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숲을 살리는 삶을 사는 좋은 어른으로 크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한마당에 참가한 민서 엄마 양지유(본오동) 씨는 "아이가 숲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해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하게 됐다"며 "취지도 좋고 아이도 좋아해서 다음 행사 때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교사인 조수경 씨는 "숲을 일부러 찾지는 않는데 도시 속에서 이런 숲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다"고 했다. 안산환경재단 생태계서비스팀의 양봉화 주임은 "안산에 좋은 도시숲이 많다.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숲을 안산시민에게 알리고 맘껏 노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생태체험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산 곳곳의 도시숲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소풍가듯 나와 놀이를 통해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랑유원지와 갈대습지공원에서 생태체험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오까지 진행된 2019 유아숲 생태체험 한마당은 유아들에게 안산환경재단이 준비한 자연그림 퍼즐을 선물하며 큰 호수 속에 다음 생태체험 한마당을 기억했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15)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안산 올림픽수영장

여름 성수기 일요 자유 수영 프로그램 운영

안산도시공사는 23일 올림픽수영장 여름 성수기 일요 자유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올림픽수영장은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9회 장애인체육대회 준비로 3개월 간 휴장하였다가 17일 정식 재개장했다.

성수기 일요 자유 수영 프로그램은 9월까지 4개월간 셋째 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1부(오전9시~11시 50분)와 2부(오후1시~4시 50분)로 진행된다. 이용요금은 ▲성인 2천700원 ▲청소년 1천890원 ▲경로·어린이 1천620원이고, 장애인·국가유공자·수급자는 증명서 확인을 통해 1천350원으로 할인된다. 일요 자유 수영 프로그램은 일반 수영 프로그램 월 회원도 이용권 구입이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올림픽수영장의 일요 자유 수영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올림픽수영장에 앞서 호수실내수영장, 선부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신길수영장에서 6월 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4863)

구분	성인(중학생이상)	유아(36개월이상)·어린이	경로(65세이상)
평일	오전 6시~7시 50분	오후 1시~2시 50분	오후 1시~2시 50분
	오후 1시~2시 50분		
	오후 4시~5시 50분	오후 4시~5시 50분	
	오후 8시 30분~9시 20분		
토요일	1부 오전 6시 ~ 11시 50분 2부 오후 1시~4시 50분		
일요일	1부 오전 9시 ~ 11시50분 2부 오후 1시~4시 50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월 회원도 일요일은 자유 수영 이용권을 구입하여 이용합니다.		
이용금액	◇ 성인 : 2천700원 ◇ 경로, 어린이 : 1천620원 ◇ 청소년 : 1천89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할인) : 1천350원(증명서 확인필수)		

※ 자유 수영 이용 인원이 많을 시 한시적 입장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다음 입장 시까지 다소 기다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족 다함께
구명조끼 입고 캠페인



구명조끼 입고 안전한 물놀이!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2.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3.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6.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7.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8.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9.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10.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노력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 제2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 실시

14일 누에섬 풍력발전소,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와 노외주차장 방문해 현장 상황 파악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6월 14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앞서 10일부터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누에섬 풍력발전소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 등 3곳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먼저 누에섬 풍력발전소를 방문해서는 현재 시 녹색에너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의 그간의 운영 실적 등을 파악하고, 향후 시설 운영 주체를 이관하는 사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10년 선감동 산170번지 일원에 총 2250kw의 규모로 건설된 이 발전소의 관리 문제와 관련, 유지 보수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에 따르는 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센터 내 목욕탕 시설의 규모와 센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도시재생과 측과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금과 시비를 투입해 대부동동 산148-4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는 국제 규모의 수영장과 체육관, 주민복지시설 등을 갖춰 대부동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번째 방문 장소인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대부동동 1870-201번지 일원)에서는 시 교통정책과로부터 법면 설치 등으로 주차면수가 당초 계획인 194면 보다 30면 줄게 된 경위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시 측에 사유지와 사유지가 맞닿아 있는 경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4일 제2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

주차 차량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날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들은 행감 강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결과 보고 작성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문화복지위, 제2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 실시

기행위-도시정보센터·안산팍, 문복위-별망어촌문화관 공사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강평 앞두고 현장활동 통해 내실 기해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17일 제2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왼쪽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의 모습이고 사진 오른쪽은 문화복지위원회의 모습.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가 6월 1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두 상임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안산도시정보센터와 안산팍 영농조합법인을 잇달아 찾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는 이 센터가 처음으로 기행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본 현황과 운영 체

계를 등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시간을 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올해 4월 해안로에 구축 완료된 안산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기능과 이로 인해 개선된 교통 흐름 등을 직접 확인한 뒤, 향후 추진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아울러 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교대 방식 등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 팔곡이동에 소재한 안산팍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동한 위원들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재배 및 출하 과정을 살펴보고,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및 농민들과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한 데도 판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도 시화MTV 제49호 수변공원 내 조성 중인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시 해양수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며 책임 있는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놴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와 같은 교통약자가 방문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마당부터 건물 층층이 포설된 잡석 정리, △옥상공원 같은 옥외 휴게 공간 조성 등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와 시공사측이 준공 전까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배치를 통해 이 시설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을 마친 의회는 18일 그 동안의 감사 내용을 갈무리하는 강평을 실시했다.

책 읽는 안산 / 7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여름의 문턱, 반짝이는 문학과 함께

아동



구운몽

저자 김만중 / 출판사 파란자전거

서포 김만중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은 아들 김만중이 남들처럼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누렸으면 하는 어머니에게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며,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가장 소중한 삶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



서울, 1964년 겨울

저자 김승옥 / 출판사 삼성

4.19 혁명으로 시작하여 6.3 항쟁으로 이어진 1960년대를 배경으로, 서울이라는 욕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세 인물 '안'과 '나'와 '사내'를 통해 비정상적이고 비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성인



마음

저자 나쓰메 소세키 / 출판사 현암사

남과 통 어울리려 들지 않고도 유일하게 '선생님'에게만 일방적으로 다가서는 '나'와,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태연스럽게 말하는 '선생님'의 관계를 통해, 존재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통 받는 인간의 초상을 정밀하게 그려낸 소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에고이즘에 대한 추구와 비판이 철저하게 묘사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 전개되는 심리묘사가 극히 세밀하고 솔직하게 느껴진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생활
상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추월하다가, 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고가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기존 쌍방과실로 처리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사고들을 가해자 100% 과실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5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쌍방과실은 사고처리비용 분담 비율을 9대 1에서 5대 5 등으로 가·피해자가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억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처리되던 사고가 가해자가 모두 책임질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 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건 가운데 가해자 100% 과실은 9건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기존에는 피해차량은 20%의 책임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다. 앞으로는 추월하다 사고를 낸 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직진

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며 사고를 내면 100% 책임을 지게 됐다. 이처럼 가해차량을 피할 수 없는 사고여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피해운전자 등 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마련됐다.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를 충격할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손해보험사들은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을 책정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고 차량에 100% 과실을 묻게 됐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돌고 있는 차량을 뒤늦게 진입한 차가 충돌했을 때는, 뒤에 진입한 차에 80%의 과실을 책정한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독자코너 참여자 모집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호띠의 아침식사

아기이름: 양민호(여) 출생년월: 2018년 6월 태명: 중전
태몽: 산에서 칩뿌리 캐 먹는 어릴적 꿈 꾸었는데 그게 칩뿌리가 아닌 산삼이었다는...ㅎㅎ,
호띠는 아이가 '호띠, 호띠'라며 중얼거리길래 지어준 별명

“먹방의 시대, 저도 한몫 끼워주세요”

먹는 거라면 둘 째 가기를 서러워하는 우리집 귀염둥이 '호띠'가 방바닥에 한상 차렸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두부입니다. 시골에서 외할머니가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토종 웰빙 두부입니다.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던지, 아이가 먼저 알고 폭풍흡입하네요. 먹는 장소요? 뭐, 방바닥이면 어쩔고, 식탁이면 어쩔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면 그만이지요.

이제 2030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거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텐데,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밝은 마음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젠 출산이 국력이니가요. 안산시의 모든 부부들이 수송수송 아기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부들을 응원합니다.

• 김옥임(단원구 선부동)



특별
기고

서리의 추억

‘서리’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지 약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훔쳐 먹는 일종의 장난. 서리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배고픔 채우고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애교스러운 도둑놀이였다’고 나온다. ‘절도’ 형법 제329조는 절도라는 죄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애교스러운 놀이라고 정의된 서리와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하는 절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예전에 시골에서 흔히 있었던 서리에 대한 인식은 그저 가벼운 놀이 정도였다. 물론 과수원이나 밭주인들은 무서운 표정과 말투로 서리하는 아이들을 혼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걸로 끝이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요즘은 도시화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집들이 많이 줄었고, 예전에 비해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줄어서 아이들이 서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서리를 모른다고 하여 요즘 청소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차탈이라는 절도 범죄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게나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절도에 대하여는 예전처럼 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리’와 ‘절도’

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지만, 재물의 종류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다르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더하여 요즘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잔인해졌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사회 어른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보다는 증오와 분노만 남은 듯한 현실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가까운 싸움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어른들의 증오와 분노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서리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 이해와 관용이 있었던 과거의 훈훈한 모습을 보고 싶다.

• 김성천(변호사)

독자
투고

안산시립국악단 56회 정기연주회를 다녀와서

누군가의 선물로 안산시립국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공연티켓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좋은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뻐했다. 티켓이 4장이나 있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 처음 보는 공연이었는데 다들 좋았다고 하니 뿌듯해진다. 또 다른 사람을 음악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어서 행복해졌다.

공연을 보고 돌아온 지금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영혼의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다. 함께 박수치고, 어깨를 흔들며, 소리도 지르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여섯 곡의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두 시간이 금세 지나버렸다. ‘화려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안산시립국악단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무대를 가득 메우고,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오케스트라로 연주됐다. 이렇게 웅장한 무대를 가까이에서 보고, 화려한 소리로 가득 메워진 해돋이 극장은 또 하나의 장관이었다. 남산국악당 예술감독 한덕택님의 사회는 국악의 극치를 더해줬다. 해설이 있는 국악을 들으며 이해도 되고, 연주자들의 손놀림과 표정까지 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들의 흥에 젖어드는 것 같았다.

안산시립국악단 연주가 좋아서 정보를 들으면 티켓을 예매하고 오다보니 이제 귀에 익숙한 곡들도 있어서 반가웠다. 연주자들의 매너도 짱이어서 앙코르 곡도 이윽고 지휘자와 임상규 지휘자가 한국식 해 주셔서 두곡이나 더 듣게 되어 귀가 호강한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음악이라서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줄 알았는데, 가깝게는 한국, 중국, 일본과 교류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음악이 자랑스러워졌다. 말을 타고 몽골 초원을 달리기도 하고, 배를 타고 태평양도 항해한 불타는 목요일 저녁이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악을 접하면서 해금도, 대금도, 아쟁도, 가야금도 새로운 친구가 되는 듯하다. 드럼이나 다른 타악기들과 콘트라베이스 등 장르를 넘어서 조화를 이루며 연주되는 음악의 선율이 신나기도 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듯 위로가 되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힘으로 무장하는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 김하진(단원구 고잔동)

독자
투고

이웃을 배려해 주는 고마운 안산 사람들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좀 벌 요량으로 우유 배달을 시작한지 1년이 다 됐다. 얼마 전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곳은 날 팬스레 우유가 늦거나 실수라도 하면 느닷없이 ‘우유 넣지 마세요’라고 할까봐 늘 노심초사다.

‘오늘은 그런 말 듣지 말아야지’ 싶어서 서둘러 나선 길. 가가호호 정신없이 우유 투입에 몰두하다보니 비 내리는 눅눅한 날씨 덕분에 등에 땀이 흥건하다.

일을 시작한지 1시간30분, 이제 마지막 아파트 한 라인만 남았다. 왓?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파트에 다다라 보니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스위치를 누르는 곳에는 ‘고장, 곧 수리조치 하겠습니다. 관리실’이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다. 아, 난 죽었다... 2호라인 딱 1집인데 하필 그 집이 무려 13층이다. 별수 없이 아파트 등반길에 올라야 한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는 짜증을 참으며 우유 2통을 들고 계단을 막 올라서려는데 출입문 바로 옆에 조그만 볼펜으로 급히 쓴 듯 한 조그만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인즉 “우유 아줌마, 엘리베이터 고장이람당. 힘드네 올라오 시지 마시고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세요. 1302호”

어마맏!!!!!!!!!!!!!! 이럴수가... 그집 예쁜이 둘째딸 수희라는 학생의 쪽지였다.

1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올라갈 우유 아줌마를 생각해 너무나 배려해준 그 조그만 글씨. 아, 정말 눈물이 났다. 이렇게 고마울데가...

우유를 정말 우편함에 넣으려다 멈칫... 수희 학생처럼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는 성심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끈 솟는다. 이렇게 고마운 고객에게 미지근한 우유를 드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단숨에 13층을 등정해 우유를 넣어 드렸다. 임무 완수!! 온종일 기분 좋고 아름다운 아침, 그런 이웃들과 함께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게 행복하다.

• 남보라(상록구 반석로)



시민여러분의 생활수기를 모집합니다.

원고료는 안산사랑 상품권 ‘다운’으로 지급됩니다.

메일 _ansannews@korea.kr / 전화 _031-481-2042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업무개시



- ◇ **이전 위치** : 안산시청 제2별관 1층(舊보건소)
- ◇ **업무개시일** : 2019.7.1.(월)
- ◇ **내용** : 신축공사로 인한 임시청사 이전
- ◇ **문의** : 고잔동행정복지센터 (031-481-6602)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업무개시



- ◇ **이전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75 (성포동 안산농협 건물 1층)
- ◇ **업무개시일** : 2019.7.1.(월)
- ◇ **내용** : 신축공사로 인한 임시청사 이전
- ◇ **문의** : 성포동행정복지센터 (031-481-5609)

관외 중·고등학교 진학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서 접수

- ◇ **신청기간** : 2019. 6. 3. ~ 2019. 12. 10.
- ◇ **신청자** : 학부모, 학생(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청소년과
-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지출영수증, 구입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자 등본 제출 제외)
-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 **일시** : 2019. 7. 3.(수) 18:30~21:0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 **내용** : 식전공연, 양성평등 퍼포먼스, 기념식, 축하공연 등

스마트도서관 이용 안내



- 상록수역과 중앙역스마트도서관 도서가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 ◇ **이용대상** : 안산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모바일회원증 가능)
-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02~04시 시스템안정화 작업 이용불가)
- ◇ **대출반납** : 1인당 2권, 10일간 대출
- ※ 한대앞역과 초지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이 곧 찾아갑니다.
- ※ 도서는 분기별로 신간과 베스트셀러로 교체됩니다.

시민 정책제안 및 비전 슬로건 공모



- ◇ 안산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비전을 개발하고자 '2030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시민 정책제안 및 비전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참여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팝업창)
- ◇ **질의사항** : 정책기획관(031-481-2477)

깨끗한 안산! 살맛나는 청림 생생도시!

생생한 일자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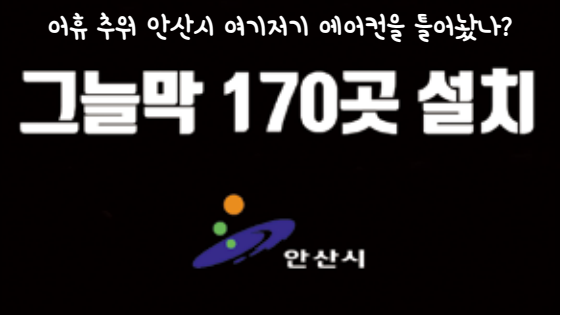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안산919취업광장

- ◇ **일시** : 2019.7.4.(목)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 ◇ **일시** : 2019.7.19.(금)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주최/주관** :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 · 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277/2919)



우리집 에너지를 부탁해

집에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해요!



세탁물을 한번에 모아서 세탁횟수를 줄여요!

에어컨 온도는 25~26도로 유지 바람의 세기는 약으로!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모드로 두지 않아야 해요.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채워주세요

여름 바캉스 지하철에서 쿨하게 보내기

- ★ 스마트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안산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모바일회원증 가능)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02~04시 시스템안정화 작업 이용불가)
- 대출반납 : 1인당 2권, 10일간 대출 /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거기에 반납
- 반납연기, 예약도서, 상포대차 불가
- 도서교체 : 분기별 신간과 베스트셀러로 교체(3, 6, 9, 12월)



* 한대앞역과 초지역에 스마트도서관이 곧 찾아갑니다.

안산중앙도서관
481-2702 / 1544-9502-3